

제 257호 · 2014년 5월 21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러시아가 향후 유럽 물류를 선도할 듯
2. 크림반도 사태 영향, 레나강 교량건설 연기될 듯
3. DHL, 새로운 물류전망 보고서 발행
4. 엔트워프 항만공사,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재배치

물류시장동향

1. 일본 SG 홀딩스, 스리랑카 물류기업 지분 인수
2. Ruscon, 모스크바~극동러시아 철도 서비스 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러시아가 향후 유럽 물류를 선도할 듯

- 최근 JIL(Jones Lang La)과 International CoreNet Global Association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러시아가 물류잠재력 측면에서 유럽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초에 시작한 이 연구는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에서 창고 및 물류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60개 소매, 제조,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 유럽국가 중 러시아 다음으로는 터키와 폴란드의 물류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러시아와 터키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은 예상되지만, 높은 지가와 관료주의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 연구의 조사 대상자 2/3 이상은 향후 3년 동안 유럽에서 창고시설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유럽의 창고수요는 전통적인 무역과 온라인 무역이 통합된 새로운 무역 형태가 성장함에 따라 소매업체들이 배송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전략에 기인함
- JIL은 향후 유럽지역의 창고 수요 중 약 40%는 30~50,000m² 규모의 대형 창고, 약 30%는 10,000m² 규모의 소형 창고, 약 25%는 초대형 창고가 될 것으로 추정했음
 - 유럽 시장의 창고 및 물류시설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비용 절감이 핵심적인 성공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전자상거래와 다채널(multichannel) 소매가 유럽물류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3년 동안 유럽 물류시장은 3가지 추세 및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 3가지 추세는 전자상거래 및 다채널 교역,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첨단 기술 등이며, 3가지 도전은 수송비용 증가, 고객의 리드타임 단축 요구 증가,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제시됨
- 러시아는 현재까지도 사업리스크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향후 잠재력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빠른 시간내에 본격적인 러시아 물류시장 진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성에 있어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과 더불어 물류의 핵심 거점에 창고 시설의 건설 및 운영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 www.supplychain247.com, 2014.5.

김근섭 부연구위원 (☎ 02-2105-2846, gskim@kmi.re.kr)

□ 크림반도 사태 영향, 레나강 교량건설 연기될 듯

- 러시아 최대의 도로 인프라 사업으로 꼽히는 레나강 교량 공사가 크림반도 사태의 영향으로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됨
 - 레나강 교량은 러시아 사하공화국 수도 야쿠츠크를 스코보로디노 인근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하는 아무르-야쿠츠크 고속도로(일명 M56 레나고속도로)상에 위치함
 - 러시아 연방도로청(Rosavtodor)은 야쿠차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 극동 전역의 개발 차원에서 동 교량을 건설하기로 결정, 2014년 1월 약 400억 루블(미화 11억5천만 달러, 한화 1조1,780억 원)을 공사비로 책정(이 중 1백70억 루블은 민간 투자를 통해 조달 계획)
 - 러시아는 크림반도 사태 수습을 위한 재원조달의 일환으로, 레나강 교량건설 외에 흑해 연안의 타만(Taman) 항 건설 계획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을 잇달아 보류

<레나강 교량건설 예정위치 >



자료 : www.siberiantimes.com

<레나강과 야쿠츠크>



자료 : www.sokoltours.com

- 레나강 교량은 사상 최대의 난공사
 - 레나강 교량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인 야쿠츠크에 건설 예정인 교량으로서, 레나강(유역 연장으로 세계 11위)의 넓은 하상, 높은 풍속, 두터운 결빙 등의 각종 난관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난공사로 꼽힘(공사 기간 6년 예정)
 - 레나강 교량공사는 총연장 3km의 교량과 진입로 건설 등 부대사업으로 구성
- 시베리아 자원개발과 북극해 접근 신루트 개발에도 차질이 예상됨
 - 레나강 교량공사가 연기됨에 따라 석유, 석탄, 희토류,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야쿠차 지역의 풍부한 자원개발도 지체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부산에서 출발, 블라디보스토크 및 스코보르디노, 야쿠츠크를 거쳐 러시아 북극해(틱시항)로 진입하는 북방 신물류 루트(총 연장 5,794km로 현재 부산에서 틱시에 이르는 8,235km를 대폭 단축)의 향후 개발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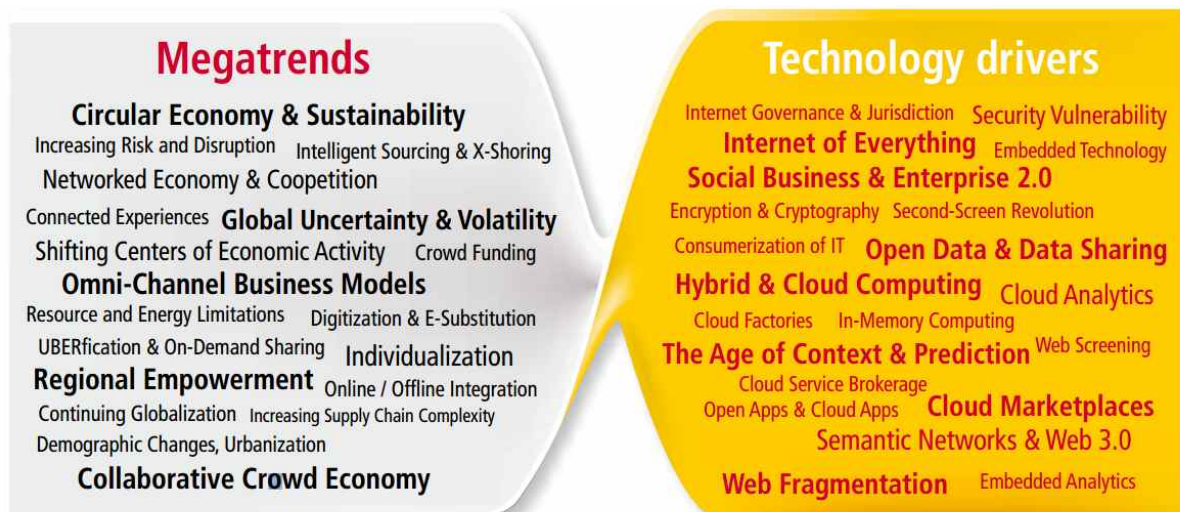
자료 : www.siberiantimes.com 2014. 5. 15.

박성준 전문연구원 (☎ 02-2105-2973, sjpark@kmi.re.kr)

□ DHL, 새로운 물류전망 보고서 발행

- 최근 DHL은 미래 물류전망 보고서인 '물류 동향 레이더(Logistics Trend Radar)' 2판을 발행했음
 - DHL의 고객 솔루션&이노베이션 부문의 전략·마케팅·개발 담당 Matthias Heutger 부사장은 "DHL은 진정한 글로벌 회사로 단일 산업의 고객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리적 영역의 물류수행 경험을 가진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며 물류 산업은 매우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함
 - 새로운 보고서에는 2013년에 발간된 기존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의 물류 동향이 추가되었으며 전문가를 위한 미래 물류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물류변화, 다채널 소매 및 구매 예측과 같이 발전중인 물류 솔루션 등을 제시했음
- DHL은 새로운 물류 동향으로 '옴니 채널 물류, 예측 가능한 물류, 암호화된 결제'를 강조했다음
 - DHL은 전자태그의 활용, 개인화된 콘텐츠와 소셜 미디어, 휴대용 기기를 이용한 상호작용을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 채널을 통합하여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옴니 채널 물류 (Omni-Channel logistics)를 새로운 물류 동향으로 소개했음
 - 또한 고객의 제품 검색 기록, 쇼핑 이력, 온라인 장바구니 목록 뿐만 아니라 물건을 선적하기 전 주문과정에서 컴퓨터 화면의 커서(cursor) 움직임까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빅 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한 예측 가능한 물류(Anticipatory logistics)를 제시했음
 - 그밖에 화폐 종류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결제방식과 다양한 결제 단위(항공 마일리지, 모바일 결제)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소액결제와 같은 새로운 가격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암호화된 결제(Crypto Payment) 방식도 소개했음

<DHL의 물류 동향 레이더에서 제시한 새로운 물류 동향과 기술>



자료 : www.dhl.com

- DHL의 보고서를 통해 미래 물류 변화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
 - DHL의 고객 솔루션&이노베이션 부문의 동향분석담당 Markus Kückelhaus이사에 따르면 새로운 보고서는 학계와 자사 파트너사의 포괄적인 전문 지식을 결합한 것임
 - 물류 동향 레이더는 미래 물류 변화에 대비하기 원하는 물류 전문가들에게 신선한 출발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arabiansupplychain.com, 2014.5.18.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 앤티워프 항만공사,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재배치

- 앤티워프 항만공사는 스키프강(Scheldt)¹⁾의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우안(right bank, 右岸)에서 좌안(left bank, 左岸)으로 이동운영하는 것을 승인했음
 - 따라서, 우안의 MSC 전용터미널은 2015년 말까지 운영 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 MSC는 앤티워프 우안의 Delwaide dock에 유럽 지역 허브역할을 하는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
 - 이 터미널은 MSC의 자회사 TIL(Terminal Investment Limited)과 PSA가 조인트 벤처 형태로 운영 중이며, 연간 540만 TEU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고, 2013년에 약 450만 TEU를 처리하였음
- 베네룩스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해 앤티워프 항만 우안지역의 확장이 필요하나, 현재 스키프강 우안쪽 Delwaide dock의 MSC 전용터미널은 시설을 확장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임
- 이 때문에 MSC는 우안쪽 Delwaide dock 전용터미널에서 처리하던 화물을 PSA가 운영하는 좌안 Deurganck dock의 전용터미널을 통해 화물을 처리하고자 함
 - 이러한 과정에서 MSC를 비롯한 P3의 화물 처리를 위한 공간 확장 역시 진행될 예정임
- PSA 앤티워프는 현재 Deurganck dock 서쪽지역의 운영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적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Deurganck dock에 대한 권리를 PSA DGD라는 신규 운영사로 이관할 계획임
 - PSA DGD는 PSA의 자회사이며, TIL의 지분 참여로 설립되었음
- Deurganck dock 서쪽지역의 MSC PSA European Terminal(MPET) 확장에 따라 PSA DGD는 연간 700만 TEU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임
- 앤티워프 항만공사는 MSC의 물동량 증가와 터미널 확장, P3/Maersk 서비스로 항만 가동률이 증가 할 것으로 예측했음
 - 따라서 MSC와 P3 파트너가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MSC PSA 터미널로 하여금 DP World 터미널 부지를 이용토록 하였음
 - 항만공사는 Deurganck dock 동쪽 지역의 일부 운영권을 기존 앤티워프 게이트웨이 터미널과 MPET에 할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 앤티워프 게이트웨이 터미널은 DP World(42.5%), Zim Pors(20%), Cosco Pacific(20%), Terminal Link /CMA-CGM(10%), Duisport(7.5%)가 조인트벤처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MSC PSA European Terminal(MPET)에 재할당 될 예정임

1) 스키프 강, 스헤르데 강: 프랑스 북부에서 발원하여 벨기에 서부와 네덜란드 서남부를 지나 북해로 흘러든다; 길이 435km. 플랑드르명은 Schelde, 프랑스명은 Escaut.

- 앤티워프 게이트웨이터미널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좌안의 터미널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으며, P3 루트에서 등장하는 16,000 및 18,000TEU급의 초대형 선박들을 이곳에서 처리할 수 없음
- 좌안 Deurganck dock로의 MSC 이동으로 기존의 우안 Delwaide dock은 비게 될 것이며, 입지적·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항만공사는 우안쪽의 수심 확장을 비롯해 미래를 대비한 항만 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것으로 보임

자료 : 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4.5.13.

손보라 연구원 (☎ 02-2105-2914, bora62@kmi.re.kr)

물류시장동향

□ 일본 SG 홀딩스, 스리랑카 물류기업 지분 인수

- 일본 사가와그룹(Sagawa Group) 지주회사인 SG 홀딩스(SG Holdings)는 490만 달러에 스리랑카 Expolanka 홀딩스(Expolanka Holdings)의 지분 30%를 인수하였음
 - Expolanka 홀딩스는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화물운송 및 SCM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포워더임
 - SG 홀딩스는 현재 아시아 역내 사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 외에도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에 현지 법인형태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음
- SG 홀딩스는 이번 제휴를 통해 스리랑카 운영통합, Expolanka 홀딩스의 포워딩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업무 확장, 그리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음
- 한편 Expolanka 홀딩스는 이번 제휴를 통해 향후 역내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제공 업체로서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물류업계에서의 입지 강화를 기대하고 있음
 - Expolanka 홀딩스 그룹의 CEO는 스리랑카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수출과 더불어 화물운송 및 물류 분야의 글로벌 확장 잠재력이 크다고 밝힘
- 현재 SG 홀딩스는 스리랑카 보안거래법(Security Exchange Act)에 따라 잔여지분 공개매수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의무공개매수제도(mandatory offer)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Expolanka 홀딩스의 잔여지분을 매입할 계획임

자료 : container-mag.com,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4.5.12.

김은우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 Ruscon, 모스크바~극동러시아 철도 서비스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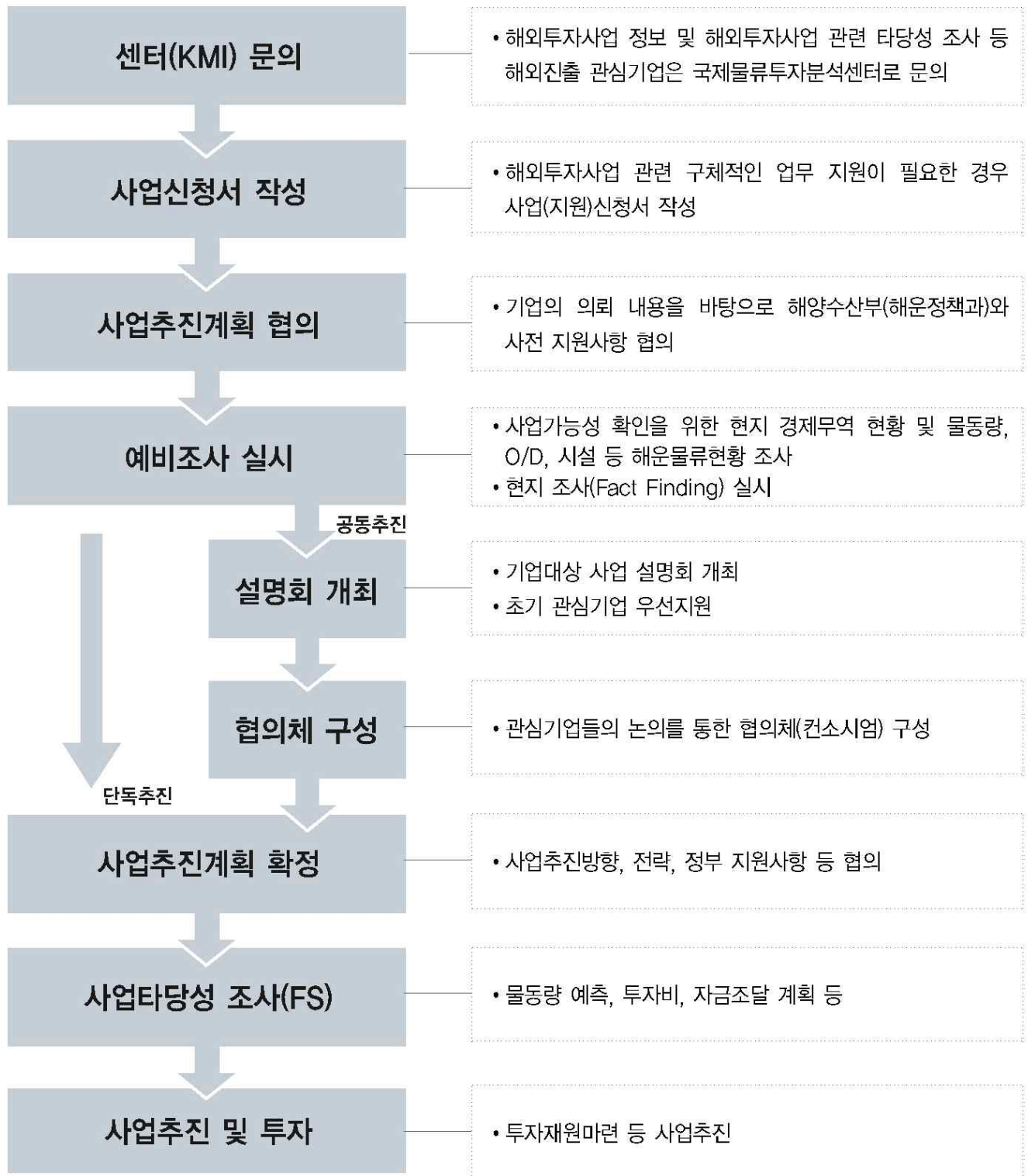
- 러시아의 운송기업인 Ruscon은 모스크바에서 극동러시아까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철도 서비스 시작한다고 밝힘
 - 화차의 운송능력은 154 TEU이며 MANP 터미널에서 출발함
 - 매주 토요일 정오에 모스크바에서 출발하여 화요일 오후에 하바롭스크에 도착함
- 본 운행에서는 Ruscon의 평판화차가 이용되며 이 철도를 통해 보스토치니와 블라디보스톡 항만에서 처리되는 화물이 모스크바까지 운송 될 수 있음

- 향후 컨테이너 화차를 투입하여 모스크바에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운송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며 러시아 중부지역에서 외곽 변두리 지역으로 지속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자료 : www.cargonewsasia.com, 2014.5.7.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